

농축수산물 추가개방

내년 7월 64품목 자율화율 93.7%

내년 7월부터 우리 양봉업계 소비의 대상인 천연꿀을 비롯해 훈제돼지고기, 오렌지 등 34개 축산물과 명태, 갈치, 건조오징어 등 30개 수산물 등 모두 64개의 농축수산물 수입이 추가로 자유화 된다.

또 양돈 등 10개 농축수산물 관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0월30일 이같은 내용의 농축수산물 개방일정을 밝히면서 97년 7월부터 64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되면 농축

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올해 95.1%에서 내년에는 98.7%로 높아져 사실상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며 이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내년 64개 품목이 풀리면 수입제한품목은 신선·냉장생동 쇠고기 등 24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 품목도 UR협정 이행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수입이 자유화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은 95년 160개 품

목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수입 자유화한 후 올해는 34개 품목을 자유화했다. (UR협정에 따른 수입천연꿀의 연도별 양허세율 적용은 별표를 참고하기 바람)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는 업종은 △채소작물생산업 △종묘생산업 △멜론생산업 △낙농업 △육우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원예관련 서비스업 △일반 내수면어업 △내수면양식업 등이다.

천연꿀 연도별(1995 - 2004) 양허세율 적용표

적용구분	'94세율	기준세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종가세(%)	20%	270.0	267.3	264.6	261.9	259.2	256.5	253.8	251.1	248.4	245.7	243.0
종량세(kg/원)	-	-	2,050	2,030	2,009	1,988	1,968	1,947	1,926	1,905	1,885	1,864
* MMA	20%		현행세율 20%(종가세)									

수입육류 유해 잔류물질 검사강화 동검, 대상항목 83종으로 늘려

최근 수입육류를 비롯한 축산물의 항생제 및 농약 등의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우리의 양봉산물 역시 이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기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국립동물검역소는 10월15일 올해말까지 수입육류의 잔류물질 검사대상 항목을 현재의 68종에서 83종으로 15종을 늘리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

다고 밝혔다. 동검은 이에 앞서 10월초 기존의 56종이었던 검사대상 항목에 2개의 항생물질과 10개의 농약성분을 추가한 바 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겐타마이신, 아목시실린 등 항생물질과 알디카브, 벤대오카브, 클로로피리포스-메틸, 치모메치오네이트, 디메티핀, 에티오피카브, 메소밀, 메치오카브, 프로폭스, 트리아티페논 등 10종의 농

약이다. 동검은 올 연말까지 클로단, 사이터메트린, 2, 4-D, 델타메트린, 펜치온, 펜발레이트, 메소프렌, 메타크리포스, 펜토이트, 페메트린, 포레이트, 포스메트, 피리미포스메틸, 프로피코나졸, 티뷰포스 등 15종의 농약을 잔류물질 검사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동검은 지난 8월초 부산항에 도착한 중국산 냉동오리 14톤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전량 반송조치했다고 밝혔다.

본협회 시도지회별 정기총회 일정

월 / 일	요일	지 회	월 / 일	요일	지 회
12/2	월	서울	12/12	목	충북
12/4	수	경남	12/16	월	전남
12/5	목	부산	12/17	화	전북
12/6	금	경북	12/18	수	충남
12/10	화	강원	1/7	화	제주
12/11	수	경기	1/10	금	인천

밤 3년연속 1억달러 수출전망 산림청, 밤 10만8천톤 생산

올해의 밤이 풍작을 이루어 밤 수출이 3년 연속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밤송이수가 많이 달리고 태풍피해가 없었으며 항공방제 등의 조기에잘제 실시 등으로 밤 생산이 사상 최대인

10만8천톤을 기록했다.

밤수출은 생산량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92년 우리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1억달러를 수출했으며 94년 이후 3년연속 1억달러 이상을 수출했다.

밤은 국내 생산량의 약 30%

를 대부분 간밤상태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시장 96%를 점유하고 있다. 또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출 유망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밤 수출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趙琪泰

본협회 제8~10대 회장을 역임한 조기태(趙琪泰) 전회장이 지난 11월5일 새벽 1시경 자택(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848-62, 전화 053-656-2186)에서 향년 5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11월7일 오전 9시 자택에서 엄수됐

이사직을 맡아 본협회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해 1983년에 제7대 부회장에, 1985년에는 제8대 회장에 피선된 후로 1993년까지 제10대까지 3회연임의 회장직을 봉직하였다. 고인은 13년간 동안 본협회 임원직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양봉업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5척단신(五尺短身)에 가냘픈 듯한 체구와는 달리 안경너머로 내뿜는 험험한 안광이 상대를 압도하는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의 인상을 가진 고인은 94년 2월 제21차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양봉업이 천직인 천성을 버리지 못하여 증봉수급과 대용화분 국내공급 사업에 열정

13년간 협회를 위해 큰 공적 남겨 5척단신 외유내강... 평생 양봉업

며 가족과 친지, 동료 양봉인들의 애도 속에 경북 고령군 포동 선영에 마련된 유택에 안장되었다.

고인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동 출신으로 함리에서 중학교를 졸업한후 대구시에 영남고를 졸업하고 20대 초반 나이로 일찌기 양봉업을 시작했으며 1985년에는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36년의 양봉경력과 함께 항학열이 대단한 베테랑 양봉가 중 한사람이었다.

1981년에는 본협회 제6대

을 보이던중에 할일을 다하지 못한채 운명을 달리한 것이 포동 선영에 마련된 유택에 다.

한편 정해운 회장은 고 조기태 전회장의 장례를 마친 다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인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양봉인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협회운영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박금자 여사와 2남3녀가 있는데 위로 네자매는 일찌기 성가하였고 미혼인 차남이 있다.

벌꿀 현금수매 안내

양봉가 여러분의 정성어린 생산물인 아카시아꿀을 현금으로 수매키로 결정하였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영업안내 =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판매
- 벌꿀 규격드럼(중량 약 33kg)
- 벌꿀 규격말통(25kg 들이)
- 벌꿀 규격병(신형·구형)

한국양봉진흥(주)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 (02) 481-3697~8, 441-2780, FAX ; (02) 442-9426

아 피 톨

가사용애 및 꿀벌진드기 구제는 월동사양을 끝낸후 사양수에 아피톨을 혼합하여 딱! 1번만 급이하면 완벽하게 구제됩니다.

- 약제처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 약효 탁월합니다.
- 안전성 안심하세요.
- 완벽한 약제는 약간 비쌉니다.

1갑 12g,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합니다.

일진실업

문의전화

(02)923-3470

927-3983(FAX)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1. 남도빌딩 301호. 김진동